

한국BASF, 비타민 B2 군산공장 준공

생산능력 3000톤으로 국내 최초 ... 글로벌 역량센터로 자리 굳혀

한국BASF가 국내 최초로 군산에 3000톤의 식용 및 사료용 비타민 B2 공장을 건설하고 11월10일 준공식을 가졌다.

신설 공장은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인 미국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충족한 최첨단의 공장으로서 고도로 정제된 사료 및 식용 비타민 B2를 생산하게 된다.

준공식에서 한국BASF 김종광 회장은 “BASF가 한국에서 꾸준히 추구해 온 장기적 성공을 바탕으로 든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Win-Win 전략을 추진한 결과 세계적인 규모의 비타민 B2 공장을 건설하게 됐으며, 앞으로 국내 수출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BASF 군산 공장은 1998년 대상으로부터 인수한 라이신(Lysine) 생산공장이 모태로, 한국BASF 4개 사업부문 중 생화학제품 사업부문 소속이다.

가축 영양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을 한해 10만톤 가량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비타민 B2 공장 준공에 힘입어 BASF그룹 내 발효생산의 글로벌 역량센터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특히, 화학적 합성법에서 한발 나아가 BASF의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환경친화적으로 비타민 B2를 상업 생산할 수 있다.

한국BASF의 비타민 B2 공장 준공식



† 왼쪽부터 안드레아스 헨네 BASF그룹 정밀화학사업부 생산담당 부사장, 플로리안 슈프너 한독 상공회의소장, 김종광 한국BASF 회장, 강근호 군산시장, 박봉규 산업자원부 차관보

세계 수요가 연평균 4% 증가하고 있는 비타민 B2는 노란색 분말 형태로 물에 잘 녹으며, 인간과 동물의 영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용유와 효모 농축액, 대두 분말 등을 원료로 제조돼 돼지나 닭과 같은 동물용 사료에 필수성분으로 포함되며, 식품의 황색 색소로도 사용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11>